

 기획재정부		보도해명자료	
보도일시	배포 시	배포일시	2019. 10. 10.(목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천재호 (044-215-2230)	담당자	이홍섭 사무관(044-215-4532) leehs86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박동일 (044-203-4260)		전두민 서기관(044-203-4261) dmjeon@korea.kr

**2019. 10. 11.(금) 매일경제(가판),
「소부장경쟁력촉진위원회부터 졸속」 제하 기사 관련**

< 언론 보도내용 >

- ☐ '19. 10. 11.(금) 매일경제(가판)는 「소부장경쟁력촉진위원회부터 졸속」 제하 기사에서,
 - “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구하지 못해 ‘보여주기식’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”면서
 - “첫 회의에는 전체 50명 중 위촉이 완료된 14명만 참석할 전망이다, 그나마 핵심 자문역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 위원은 7~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보도

<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 입장 >

- ☐ 정부는 지난 8.5일 발표한 「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」에 따라 ‘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’(이하 경쟁력위원회)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옵

- 먼저, 「경쟁력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」(대통령령)을 신속히 제정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*하고,
 - * 차관회의(9.6) → 국무회의 의결(9.10) → 최종 공포·시행(9.17)
 -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‘경제단체·연구기관의 장’, ‘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전문가’ 등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,
 - 10. 11일(금)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됨
- ☐ 한편, 경쟁력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, 민간위원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임
- 「경쟁력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」상 민간위원은 최대 50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나,
 -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총 30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「소재·부품 특별법조치법」 전면 개정안(9.30일 발의)의 취지를 감안하여 1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한 것임
 - 따라서, 보도내용 중 “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구하지 못했다”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